

『프롤로그』

이수현은 죽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마지막까지 플레이하던 야겜은 컴퓨터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태.

초점을 잃어가는 시야와 힘이 빠진 몸은 그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죽음에 이르고 난 뒤에도, 그것을 지켜봤고. 시체에 파리가 꼬이며 부패한 향이 날 때까지도, 대기 절전 모드를 정지해둔 컴퓨터는 능욕되는 마법소녀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영했다.

그 모습을 그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죽은 상태임에도 그것이 인지된다는 사실에 이상함은 느끼지도 못했다.

아마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이었다면 이어졌던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지.

— 썩 좋지는 않은 죽음이군.

— 위이이잉 —

하지만 [그]는 그런 이수현의 눈 앞에 천천히 걸어왔다.

마침내 출동한 듯한 소방차보다 한발 앞서서, [그]는 마치 관찰하듯 시선을 내렸다.

이수현이 고립되어 있는 쓰레기장 같은 방 안에서, [그것]은 조용히 훑조렸고.

— 이런 꼴로 발견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기는 하지.

이수현은 그 순간에 생각했다.

이게 함정이라고 해도, 선택하지 않을 방도는 없다고.

그리고 그게 문제였다.

— 어때, 들어보겠나 ?

그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25세에 죽은 이수현은 그렇게 제안된 계약을 생각없이 받아들였고, 다시 태어났다.

...그가 지금까지 마구잡이로 모아온 무수한 작품이 모여서 엮여버린 이 세계에 그는 태어나버렸다.

용량은, 장장 3테라 바이트.

— Y를 눌러 튜토리얼을 진행해주세요.

대략 삼백개 이상의 야겜과 야한 애니, 수천권 이상의 야한 만화, 수만편 이상의 야설로 이뤄진 세계에서.

이수현은 천천히 눈을 굴렸다.

— 쿠콰콰쾅 !

평소처럼 커튼을 쳐둔 집 안.

바깥에서는 마법소녀가 마포를 싸갈기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다.

『1화』

— 그그극...

오랜만에 적은 수면 때문에 눈 밑이 지끈거린다.

아니 수면 때문만일련지는 모르겠는 상태로, 이수현은 허공에 떠오른 프롤로그를 진행하라는 알림을 밑으로 끌어내렸다.

눈 앞에 저런 창이 떴음에도 프롤로그를 진행하지 못한 지도 어언 14년.

3살에 자기 자신을 자각한 이후, 벌써 17살까지 살아왔음에도 진행할 방도를 찾지 못한 프롤로그.

그런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었다.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Y키라는 것에 관심이 강제로 없게 됐거나.

‘벌써 8시인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일 퀘스트랍시고 나오는 것을 깨고 얻는 소소한 보상들이 낫다면 나은 터.

물론 그것들도 퀘스트창이 안 눌려서 깔 수 있는지 아닌지가 보이지도 않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건 보상이라도 주기는 하는 것이다.

매일 쓰레기만 주는 줄 알았지만, 어제 이후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

— 띵.

“오늘은...”

그리고 그리 생각하며 그가 우유를 컵에 따르며 TV를 키면, 늘 그렇듯이 생중계라는 이름으로 괴수의 난동이 방송됐다.

용, 외계인, 마물, 악의 조직, 돌연변이, 일본인, 이종족.

지금까지 많은 것의 침공을 봐왔으니 당황하지 않고, TV속 괴수가 촉수를 휘두르며 부수고 있는 시가지가 도보로 30분은 걸리는 거리임에 안심하고 있으면.

그 촉수에 얹어맞은 채 추락해가는 여성의 신형을 TV가 줌 인 하는 것이 보였다.

“아니, 오늘도.”

마법소녀는 패배한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딱히 패배 H씬 같은 건 나오지 않은 모양이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아침 대신 우유만 마시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관두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휴교인가.”

마법소녀가 졌다면 국가가 운영한다는 신비청에서 요원을 보내는 데도 몇 시간이 걸리니 오늘은 휴교였다.

물리적으로 저런 것이 날뛰는데 쉽사리 등교할 수 있을리가 없었음으로.

*

이수현의 하루 일과는 요즘 이런 느낌이었다.

아침에 아슬아슬하게 일어난다.

마법소녀가 괴수를 안 잡는다면 그대로 등교한다.

마법소녀가 괴수를 잡고 있다면 등교하지 않고 식사한다.

그렇지만 괴수를 잡고 있는 중인 마법소녀가 승리한다 싶으면 그냥 우유만 마시고, 아니라면 좀 더 제대로 차려서 식사를 끝내는 것이다.

대체로, 상황이 그랬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되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 우우우웅.

— 신비청 경보) 현재 송파 잠실 일대에서 <알파 센타우리족>의 침공이 일어나는 중이니 근방 주민분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청 요원이 현재 출동 중입니다.

상황이 이리 되면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되면 웹캠 화면을 자동으로 변경해둔 채 식사나 하고 시간을 때우는 걸로 충분해지니 그랬던 것이다.

선생조차 출근 못하면 온라인 수업도 없다.

이것 하나만큼은 이 세계의 몇 안되는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 우우웅.

— 선주학원 학부모 공지) 금일 수업은 출근 교사가 절반 이하로 휴강하게 되어...

오늘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휴강에 성공한 것과는 별개로 그게 그닥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6월 15일쯤 된 이번 달에 벌써 10번 정도 진 마법소녀나 월급쟁이 선생들의 생각은 어떨련지 모르겠지만.

“삶이란.”

새삼 생각하지만 심하다.

이런 세계에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니.

컴퓨터를 끄는 것도 모자라서 가져다가 완전히 데이터까지 소각해서 부숴준다기에 냉큼 받아들였지만, 그 말로가 이런 것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을까.

대리전이라고 [그것]은 그 날 말했다지만 자세한 건 튜토리얼을 깨면 안다 했는데...

“거지같은 것.”

— 그극...

그 망할 놈의 튜토리얼이란 게 뭔지도 못 본 지가 벌써 14년이다.

그리 생각하며 저번 주에 장봐온 식재료로 만든 샌드위치를 베어물면서 그는 능숙히 학교에서 받아온 노트북을 꺼냈다.

일전 뽑았던 비급을 연공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 신나서 찾아본 결과, 그건 접하는 것도 아직은 이론 물건.

‘마공이라.’

그러니 그는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것들을 모두 바꿔야했다.

적어도 그가 8살에 사서 9년 동안 익혀온 장춘기공長春氣功은 갖다가 내던져 버려야 하는 게 맞다.

모든 성취를 폐하고 단전에 쓸어올린 기마저 버린 채, 다시금 쓸어올리는 것은 어렵기 그지없다고 하던가.

비록 단 하룻밤만에 장춘기공으로 연공했던 십년치 공력의 절반이 날아가버렸다지만 난이도는 본래 높은 게 맞다.

그가 전생에 보았던 수백개의 색혈지 때문에 이상하게 조합된 세상이라지만, 그런 기본적인 상식 자체는 비틀리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빠르게 이뤄지게 만들 마공은 비쌀 거라 떠올리며 그는 매도소에 들어갔다.

그가 산 총 코인의 현재 자산은 140억.

그는 이 돈으로 아마도 신비청이 금지해둔지라, 양지에서는 사지 못할 마공을 사야 한다.

‘왠만한 것만 아니어도 이런 짓은 안 했을텐데...’

왠만한 것이 아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어젯밤 일일 케스트를 끝내고 뽑은 비급의 이름은 천마옥윤색겁 **天魔辱輪色劫**.

흔히 천마신공 **天魔神功**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의 하나임이 틀림없었음으로.

*

그가 산 코인 중 백억원 이상이 무당코퍼레이션에서 발행한 무당코인 **武當錢**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무림사 **武林史**같은 건 모른다.

그가 아는 건 기껏해야 이 나라부터가 밤만 되면 음지의 세력이 들끓고, 낮에 보이는 괴수니 마물이니 사건의 침공이니 하는 건 표면적 뿐이라는 것. 그리고 해외는 이것보다도 사정이 나쁘다는 것 정도일 뿐.

미국의 정치층은 이미 옛저녁에 렙틸리언이나 외계인으로 대체됐던가, 중국의 기업문파들은 더 이상 제품도 무인도 문외로 보내지 않고 코인만 채굴한다던가...

그런 잡지식 정도나 새벽의 넷에서 주워담는 데 성공했을 뿐인 것이다.

‘다만 알고 있는 게 있기는 하지.’

하지만 그런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건 – 이 세상은 학교는 위험하다고 안 가는 초등부 어린애들도, 태권도 도장 대신 태극권 도장으로 보내줄만큼 무공이 보편적인 세상이라는 점.

아무래도 색협지 작품의 수와 파워 뱍런스가 그럭저럭 높기 때문인지, 그것이 반영되어 방송에서도 이따금 마인魔人이니 사파邪派니 하는 게 – 토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 나올 정도고.

그것조차 넘어서 아예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이었을 것의 전투직들이 무공 비스무리하게 능력이 개조된 것도 봐왔다.

당장 송파 마천쪽 뒷거리에서 건들거리는 [황룡회] 녀석들이 마공을 익혀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은 학교 선생은커녕 옆집 꼬마조차 알 정도.

그런데 내가 알기로 그 치들이 나오던 작품은 인체 개조가 주력이었으니... 무언가가 바뀌기는 바뀐 게 맞았다.

그런 만큼, 이 마공, 천마육운색겁의 출처가 그런 색협지거나, 소수의 강한 무협 소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제밤 동안 읽어본 결과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 사람의 삶 지난하여 뜯 눈으로도 앞 알기 어려우나 開 眼 不 知 傳 然 人 生 苦

‘천마육운색겁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 도가 하나부터 많은 것을 낳아 세상을 망치듯 사람도 그와 같이 무너진다 道 到 一 滿 渾
世 次 人 壞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색공色功이다.’

천마신공이라는 이름값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것은, 밤새도록 연구한 결과 색공이었다.

딱히 비급에는 그것을 만든 이가 적혀있지도 않았고, 자신을 밝히지도 않았고, 이 무공이 어떤 무공이라는 구구절절한 서술...

그러니까 원통함으로 만들었다던가, 핍박에 분노하며 만들어졌음을 뜻하니 然 卽 人 心 成 誤 胎 初
溢

그것만으로도 생각을 확신할 수 있었다.

— 이는 즉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릇되게 만들어졌음을 뜻하니 然 卽 人 心 成 誤 胎 初
溢

아홉자, 네줄의 서문구결은 거창하기 짹이 없는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나.

— 그 마음을 뜻대로 바꿈이야말로 거짓되지 않은 도로다 變 用 他 在 心 卽 不 僞 道

결국 해석해낸 뒤 이해한 그 뜻은 사람의 마음이란 건 불완전하고, 이질적이고, 잘못되어 있으니, 뜻대로 다뤄 되돌리는 것이 옳다는 것...

‘정확히는, 스스로의 뜻대로 뒤바뀐 마음이야말로 바른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달리 말하자면 최면 어플이다.

그런 효과를 지닌 무공이 색공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겨우 그 정도 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기 위해 다른 마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무협지로 치면 불완전한 비급을 복원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한 것...과 같나.’

그가 시선을 내릴 때 보이는 건 반쪽으로 나뉘어진 듯한 책자.

가장 외곽에 천마육윤색겁이라 써진 그것은 첫번째 구결과 그 구결에 대한 설명이 써진 이후 후반부가 도려내져 있었다.

상대의 마음에 손을 집어넣듯이 뒤바꾼다.

그런 것이 무공의 요체라고 할 때 그걸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氣를 빚어내는 심법心法과, 그걸 이루고 난 뒤의 운용법인 기공氣功.

그렇지만 이 비급에 존재하는 건 오로지 전반부뿐이니...남아있는 건 심법 뿐이었다.

마음에 간섭하는 진기眞氣를 빚어내고, 그 이후에 그 진기를 다루는 방법이라 할 게 모조리 도려내져 있다.

그런 뜻이다.

‘지금 이걸로는 원형의 삼분지일...’

그런 반쪽짜리가 정직하게 본래 능력의 절반을 보일 수 있다면 그건 오만이겠지.

그보다도 밀이다.

‘...아니, 오분지일까지 낮아져도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도 그가 이 단락적인, 반쪽짜리 비급에 자신을 맞추기로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오분지 일로도 노선을 바꾸기에는 충분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어제 그 오분지 일이라는 마공의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성과가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간 적 없던 그의 집 침실에 거진 준 가사 상태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 효능을 알아버린 지금, 그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겨우 그것만으로 이류 수준의 내 공력을 잡아먹고, 절정고수의 정신을 밟아버릴 수준의 힘이라면.’

타자의 마음을 제 멋대로 뒤틀리는 이 마공.

‘기공에 맞지도 않는 장춘현기長春玄氣 따위로, 절정고수의 공력이 발한 저항을 모조리 무시해버릴 정도라면.’

이 마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서,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다.

고작해야 비급을 읽고 따라돌렸던 기의 기초적인 기파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뭉개버렸다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힘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

바로 어젯밤 비급을 읽는 것만으로 발생했던 듯한 마기를 쫓아 이 집에 찾아왔던 신비청의 요원을 그리 만들었다면.

이건 분명 그런 절정고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영역의 물건이란 뜻이었음으로 그게 옳았다.

행동의 선악과는 관련없는 강약強弱을, 그는 여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 그그극, 극...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마치 나가고 싶다는 듯 벽을 깎는 소리를 무시한 채.

그는 그리 생각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터넷을 뒤졌다.

역시나 그렇지만...마공을 찾아낼 수 있거나, 살 수 있을만한 사이트는 보이지 않았다.

신비청이 인터넷을 검열하기 때문에 검열관에게 들킬까 염려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지만 그것과 관련없이.

마치 인터넷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듯한 깨끗한 모습.

당연하지만 인터넷이 그리 깨끗한 곳일리가 없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검색했다.

— 띵동.

하고, 어느샌가 벨이 울리기 전까지.

『2화』

그는 침실로 향하는 문을 키로 잠구고, 방 안의 여자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한 뒤 현관으로 나갔다.

손을 테이프로 묶어서 벽을 긁거나 침대를 두들기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그것에 대해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일.

믿을 건 그녀의 기척을 그 자신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녀가 몸 안에 품은 공력과 자연체가 은밀하다는 것 뿐이다.

그가 이류 정도 됐을 즈음에도 집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했던 움직임.

설령 정신이 완전히 훑어져버린 것 같다 해도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왠만해서는...’

아마 문제없겠지.

만약 들어올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모를까, 그건 아니다.

내공이 5할 즈음 날아가서 이제 진짜 그냥 좀 강한 고등학생과 다름없을 몸이 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문 밖의 소리는 들을 만했기 때문에 그리 판단했다.

투덜거리는 듯한 목소리.

그의 집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할 일 없을 때나 그의 집을 침공하는 소녀의 소리.

문을 뚫어버릴 정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손잡이를 내리눌렀고.

“여기까지 오는 게 뭐 큰 일이라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려 와야 해 ?”

“얘는, 네가 오랜만에 비번이니까 그래도 놀러가기 전까지 얼굴 좀 계속 보려는거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렇게 문 앞에 드러난 붉게 타오르는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와 마주쳤다.

다만 그걸 무시하고 평소 신세지던 게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 자기가 인사라도 받은 것마냥 우쭐한 녀석이 발로 신발을 톡톡 건드렸다.

평소처럼 발이라도 밟아서 복수해줄까 했지만...

“나는 안 보여 ?”

“그래, 너도 안녕...그래 그래, 새 신발 샀다고 ?”

“흥 !”

새 신발을 자랑하듯 하는 모습이기에 그만둔 채, 문을 열었다.

허락도 받지 않은 주제에 녀석이 쪼르르 달려간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그걸 적당히 헤쳐넘기면 정작 민폐는 다 끼치는 녀석이 아니라 부모 쪽이 애써 웃으며 손을 잡아왔다.

“응...그, 아줌마는 이제 출근해야 해서. 너무 민폐면 집으로 쫓아내도 되니까 편하게 있어 ?”

“평소에 장 같이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요 월. 이 정도면 괜찮죠.”

“...야 ! 내가 왔는데 반응이 왜 그런 식이야 !”

어차피 넓디 넓은 집.

술길 거야...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그런 곳.

그런 곳에 몸만 고등학생...아니 몸도 고등학생 같지 않은 녀석 하나야 맡을 만 하지 않나.

물론 이.

“이수현 !”

“...왜.”

“나 심심해.”

…한도 이상으로 건방진 녀석이 좀 귀찮기야 하지만.

“ 얘는…그러면 부탁할게 ? ”

“예 — 걱정마십쇼.”

— 띄, 띠리리릭.

— 그그극...

집에 부모라는 게 신기루마냥 존재해서 다른 어른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줬던 사람의 자식이니 집 쯤이야 비워줄 수 있지 않나.

물론 걱정되는 게 있기는 했지만...

“놀아줘.”

“공부나 해야지. 맨날 수업 안 듣고 그러면 시험도 통과 못한다.”

“흥, 특수반은 그런 교과 공부 잘 안 해도 되거든.”

“사회 나가서 바보 되려고 그러나.”

반응을 살피면…아마 모르는 것 같으니 괜찮달까.

여기가 지 집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누가 저게 커서 훌로 세상의 재앙같은 걸 척살하는 사냥꾼이 된다고 생각할까.

아니, 아니지.

지금도 성깔만이라면 그런 느낌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혹시 몰라 들릴 지 모를 소리를 덮을 동영상을 틀었다.

녀석의 주의를 돌려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생각 따위에 귀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5등급보다 밑으로 맞을 거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나 저번에 3등급 맞았거든 ! ”

안 그래도 시끄러운 녀석이기는 하지만 더 시끄러운 것으로, 노래를 맞춰뒀다.

*

— 시나리오 342-1-1. 《홍발귀안의 사냥꾼》의 메인 히로인 《홍예서》를 조우합니다.

현재 해당 인물의 호감도는 [4: 친애 親愛] 단계입니다.

호감도를 높여서 메인 시나리오를 개방해보세요.

*

이 세계에서 머리카락이 붉고 눈이 금색인 정도로는 불량학생으로 명함을 내밀 수 없다.

당장 1년에 백번도 가지 않는다면, 이름부터 왜색이 짙은 선주 학원은 절반이 일곱빛깔 다채로운 머리색이기는 하니까.



“배고파.”

물론 이 녀석의 석양같은 색깔의 머리카락은 개중에서도 일탈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마력魔力이라는 걸 각성해서 아예 특별반으로 격리된 녀석.

선주학원에 무공이니 하는 걸 익힌 사람이야 넘쳐나서 선생들은 일반적인 이능에 신경도 안 쓸 때, 정작 중학생 때 각성하자마자 혼자서 반까지 바뀔 정도인 그런 재능이나 이질성.

“알아서 챙겨 먹어. 저기 냉장고에 뺑이라던가 그런 거 있으니까.”

“에에 — 뭐 만들어줘 — ”

이수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귀찮은 짓만 시키면서 틱틱 대는 녀석일 뿐이지만, 실제 원작에서도 그런 취급이었다.

이례ぐ러적인 재능,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이성, 세계관 최강자같은 걸 노릴 수준의 기연...

남주인공과 제일 처음에 만나는 주제에 제일 나중에 공략되는 히로인이니, 타이틀 히로인답다면 다운 건 잔뜩 들고 있던 것이다.

학교에 나가서 녀석에게 끌려다니다, 교무실에서 훔쳐들었던 [염앙지력炎殃之力]이라던가 [적룡赤龍의 심장]이니 하던 말.

‘이 세계에서도 그렇다면야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 수업 들을 것도 아니면서.”

“할 거 있어.”

‘이 세계에 별 이상한 작품이 뒤섞여 있는데 최고점인지는 모를 일인가.’

기억 상으로는 게임 내에서 Mp를 극도로 높이고 마법 공격력의 속성이라던가, 내성이라던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들이었는데.

게임 내 능력 중에서도 설정상으로는 최고봉으로 꼽히는 능력으로 그는 기억했다.

뭐, 원판 원판 얘기했지만 정작 원판이던 미연시를 제대로 플레이한 건 아니라 확신은 못하긴 했다.

그저 그 정도로 강한 녀석이라면 미리 미리 친하게 지내두는 게, 도움이 되겠지 — 했을 뿐.

그리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생각한 게 벌써 11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 꼬장천재의 온갖 잡다한 기행에 어울렸는데 버릇이 좋아졌다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다.

“인터넷 해야 해.”

“...그게 뭔 할 일이야 !”

그렇게 생각하며 이전과 같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방법을 찾으려 하면, 빠르 소리친 녀석이 쿠션을 마구 손으로 때렸다.

진심으로 화가 난 건 아니다.

진심이었다면 쿠션이 폭탄처럼 팡 — 하고 터져버렸을테니까.

다만.

다음에 들려온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당코인의 가격을 적정가에 매도하는 것에 맞춰두다가 손을 멈춰버렸다.

“흥...그래서, 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 예상치 못한 일.

아니, 도리어 그렇지 못했다면 이상했나.

그는 제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수정했고, 천천히 신체의 사지를 포함한 여러 혈맥으로 퍼져있는 기를 되돌렸다.

장춘현기長春玄氣의 옅은 푸른색의 진기가 피륙 아래를 타고 단전으로 수렴한 채 기척 없이 휘돈다.

누워있던 그대로 흥예서가 고개를 들고서 그를 쳐다볼 적, 그는 그 눈동자가 여러가지 감정을 품은 것 같다 생각했다.

아직 어제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는데도 보이는...무어라 정의내리기 어려운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생각.

“지금 너희 집 안방에 누워있는 학생회장 선배랑 관련된 일이야 ?”

그는 그 말을 들은 즉시 천마육윤색검의 심법부를 운공하기 시작했다.

육천영락결六天靈落訣.

그가 일찍이 단 한번 운공해본 적 있던 — 육체를 뛰어넘는 고동에, 생각이 고스란히 젖어들었다.

『3화』

그의 경락에는 그가 십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현천진기의 진기가 쌓여 있었다.

단전이 중심이라면, 그의 몸, 팔과 다리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경락은 중심에서부터 이어진 길.

그런 곳에 쌓여있는 진기는 곧 움직임과 동시에 이뤄지는 운공運功의 주축으로서, 그에게 사람이 아닌 듯한 움직임을 보여줄 힘의 근원이 됐을 터이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도리어, 몸 안에서 한 호흡에 열댓번 돌며 기광氣光을 드러내는 운공과 달리, 지금 기의 유동은 어떠한 기척도 드러나지 않았다.

“선배라...”

“맞지 ? 그런 것 같은데.”

보통의 심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의 단전 안에 자리잡은 진기는 그렇게 육체에서부터 모조리 끄집어내진 채, 천천히 응집하고 — 압축되기 때문에 그랬다.

날숨에 어떠한 기도 실리지 않은 채, 그의 몸이 천천히 호흡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원 이유로 현아 선배가 여기 있는거야 ?”

“복잡하지.”

과연 천마옥윤색검은 홍예서에게 통할까.

아니, 통한다로는 부족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단전에 쌓인 진기가 압축되고 또 압축된 끝에 완전히 소실되어버리듯이 사라지고.

그가 바라보는 시계視界가 형상을 달리할 적 그는 떠올렸다.

그녀를 죽이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다를 수 있어야 했다.

“...꽤 많이 복잡해.”

“잔거야 ?”

“무슨 헛소리를.”

그것을 생각할 때 그의 눈에 담기는 세상은 이제 완전히 물질적인 실체를 잊게 변했다.

어제와 같다.

그가 어제 그에게 찾아왔던 선배의 정신을 잡아 완전히 으깨버렸을 때처럼, 오로지 그만이 정靜적으로 검고.

그를 제외한 모든 것이 동動적으로, 총천연색으로 뒤섞인 채 명멸하며 수채화 위의 물감처럼 뒤섞이고 있었다.

눈 앞의 그녀 또한 다를 바는 없다.

붉고, 푸르고, 보랏빛과 연분홍이 섞여 있다.

그 색채의 비율이 실시간으로 흔들리면서도 세상과 경계를 짓듯 뚜렷한 테를 가진 것만이, 그에게는 그녀의 존재를 증명짓고 있었다.

꿈처럼 몽환적인 순간.

그의 정신은 고요히 가라앉고, 손 끝의 감각이 마치 꿈 속의 한 장면처럼 희미하다.

무어라 대답해야 하는가.

“그러면 뭔데 ?”

팔짱을 낀 채 자신이 여자친구라도 되는 것마냥 날카롭게, 숨겨놓고 있던 듯한 감정을 풀어내는.

맹렬하게 푸른색이 왜인지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소녀에게 무어라 답해야, 그가 이 상황을 뜻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심법 뿐이다.

기공이 없기 때문에 그는 색채의 의미를 모른다. 그가 왜 검은 색의 색채를 가진지도 모른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뿐이라는 걸 알 뿐이었다.

지금 그의 몸은, 눈 앞에 보이는 색채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은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잠깐의 고민 끝에 폰에 손을 옮겨뒀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흥.”

불안이나 당황 따위가 뒤섞인 듯 일그러진 목소리를 생각하며, 어제 찍어뒀던 학생회장의 반라 사진을 폰에 띄워 올렸다.

보일까 말까.

그리고 보인 뒤 그녀의 색채가 거진 붉은색이 됐을 때, 그것만을 노려서 대부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이는 게 맞을지 아닐지를 생각하다가, 그는 결국 폰을 들어올리고.

그것을 본 그녀의 몸이, 잠깐의 경직 이후 태반 이후 적색으로 물드는 그 순간에.

“너, 날 뭘로 생각하고 이딴...!”

그는 그 적색에 손을 뻗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소리치려던 그녀의 몸이 멈췄고, 이수현은 그의 몸 안에 더 이상 어떤 진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려면...”

뒤늦게, 그는 그녀의 가슴에 정통으로 손을 가져갔단 걸 알고 표정을 찡그렸고.

입을 빼끔거리던 흥예서의 몸이...천천히 기울어졌다.

몸의 힘이나 마력에 이상은 없다.

그렇지만 그는 그녀의 정신이 한 순간 구멍이 난 것처럼 움직임을 멈췄다는 걸 알았다.

기절했다.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기절한 건 아니겠지만, 자의적으로 생각이 멈춘 건...아마 확실한 듯 보일 정도.

“영약도 제대로 된 걸로 사야겠네.”

한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느끼면서, 그는 그녀를 들춰맸다.

그녀의 상태가 좋아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실에서 뒤처리를 하는 걸 보일 수는 없는 법.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그렇게 안방으로 향했다.

*

안방 문을 연 뒤 흉예서를 침대 위로 던져놓는다.

그리고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 곱게 모셔두던 국내 어느 중소문파에서 만들었다는 소청단을 꺼내 집었다.

고개를 돌려 책상에서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오래 동안 주인없이 쓰이던 침대에 둘이 올라간 모양새가 보였다.

둘 모두 미녀고, 한쪽은 어제 혈도를 포함해서 신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반라였기에.

확실히 눈호강이라면 눈호강인 모습이었지만, 그는 딱히 그것에 시선이 가지는 않았다.

그것보다는, 눈은 뜨여있지만 경직된 채 쓰러진 흉예서에게 시선이 갔을 뿐이다.

‘어제 연현아를 의도치 않게 가사 상태로 만들어버린 뒤에 앞으로도 손을 더럽히는 건
각오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입맛이 썼다.

우습지도 않지만, 이대로 흥에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버릴 만큼.

감정을 끌어당겨 집어삼키는 건 스스로의 선택이었음에도 흔들리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의 부족이다.

‘손으로 잡아서 으깨버린 뒤에는 검은색으로 색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에는, 뒤늦게 검은색으로 상대의 몸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를 떠올려버렸다.

어처구니가 없다.

언제나 필요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 상념.

그것에 헛웃음이 나올 듯 했다가, 그는 천천히 허리를 기울여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었겠지.’

그것을 생각하면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될 뿐이었다.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마공을 익혀야 했다.

이 사검영락결을 통해 접어들 수 있는 그 [상태]는 홀로는 반쪽짜리기에.

그것을 다를 방법에 속하는 반쪽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꼈을 뿐이었다.

“지금이 열한시.”

그렇다면 그걸 익히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까.

“오늘이 아니라면 못해도 내일까지는 수를 써야겠지.”

시간이 없다.

학생회장이라던 녀석이 신비청 요원이었다는 걸 뒤늦게 안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신비청이 언젠가는 추적해올 거라는 사실에 더해서, 흥예서까지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무슨 수를 써야 했다.

바로 당장이라도 그래야 한다.

“흥예서는... 편모 가정이었지.”

하지만 마공이 어디 땅파서 나오는 물건도 아니고.

개중에서도 내가 바라는 기공氣功이자 심공心功 같은 부류가 어디서 떨어질 일도 없는 게 당연한가.

할 수 있는 건 생각과 방법을 찾는 것 뿐.

그렇기에 그가 앉아서 천천히 중얼거리면서 생각을 되짚을 적.

“응.”

“급하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떠났다는 변명은...

... 응 ?”

대답을 바라지 않은 말에, 그는 잠시 굳었다.

잠깐 들려온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다가, 그는 그 생각의 답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온 것이다.

“왜지 ?”

“.....”

문제는, 말을 한 게 흥예서가 아니라 연현아라는 점이었을 뿐.

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왜냐는 말에는 답이 없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손만 꼼지락거리는 연현아와 죽은 듯이 멈춰있는 흥예서를 내려다봤다.

그가 지금까지 이것들에 대해 생각하던 건 간결했다.

그가 펼친 천마옥윤색겁에 의해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지워지면서 완전히 가사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짧막한 옛 지식들로 생각해볼 때, 이건 무언가가 달랐다.

“훙예서의 능력은.”

“대마무장對魔武將《염천炎天》에게 선택받은 자...그로부터 얻어낸 본래 적룡이 가지고 있던 공능을 승계...”

“그만. 그러면 훙예서가 거짓말을 하거나 곤란할 때 보이는 버릇은 ?”

“손가락으로 머리를 꼬면서 눈길이 다른 데로...”

“훙예서가 3학년 소풍 가서 저질렀던 실수는.”

“...”

질문을 거듭한다.

그는 질문을 거듭하고, 답을 듣고, 상대가 대답할 수 있는 정보는 말하나, 대답할 수 없는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떠올렸다.

“훙예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

“...으.”

이건 차라리, 무협지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나 ?”

“...같은 특수반의 인원이었으니까, 근 삼년 동안 실전에 대해 조언...난 단독 행동 요원이라, 팀은 아니었지만...”

실흔인失魂人에 가까워 보이는 식의, 훌린 듯한 상태가 아닌가.

쓰러진 이후에 말을 걸어볼 생각 따위는 해본 적도 없었다.

흔잣말을 버릇처럼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이런 게 가능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맞는 결과인가?’

하지만, 천마옥윤색겁이 색공이라는 생각이 맞다면 이게 올바른 결과물인 걸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끼는 후배였...”

“아끼지 않았다면?”

...묻는 것에 명하니 대답하게 하는 것이 이 마공의 끝인가?

“아끼지 않았었다면?”

“아끼지 않아?”

“그래.”

천천히 질문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반라의, 보라색머리의, 어디 머리가 골빈 녀석들이 만들었을 야겜의 타이틀 히로인일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뻗어 침대에 누운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말을 건네고.

“네가 아끼던 후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다른, 사람...”

“누구였지?”

“누구...”

“남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싸구려 야겜에서나 나올 법한 CG씬의 풍경이라고 자평하면서 생각했다.

“이름이... 이수현이었나.”

“이수, 현...”

“그래, 바로 어제. 친한 후배의 집에서 마력을 느껴서 염려해서 찾아왔잖아. 그렇지 ?”

“그랬던, 가...”

“그랬지.”

띠링, 하고 울리면서 변경된 호감도가 표시된 것이야말로.

이 마공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너무도 적음을 증명할 것임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봐야 한다는 걸 깨달은 채.

손아귀 안에 잡힌 손과 그 피류 아래에 있는 듯한 그녀의 진기를 감각했다.

“분명히 그랬어.”

그는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다.

소청단을 취한 뒤에, 다시 한번 천마육윤색겁을 시험해보겠노라고.

그 공능에 대해 다시금 파악해보겠노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멍하니 말한 것을 되뇌이는, 손가락을 꿈틀거리며 침대를 긁는 여자를 내려다보다가.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밤이 올 때까지.

영약을 취한 뒤, 그 진기를 어설프게나마 갈무리할 때까지, 계속.

그리고 그 날 밤.

세번째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무릎 끊은 흥에서의 모친 앞에서, 그는 천천히 얹어낸 자신의 깨달음을 갈무리하면서.

몸 안에 서리기 시작한 마기를 운공하기 시작했다.

『4화』

섭취했던 소청단의 진기가 휘발될 적 그의 손이 움직였다.

체내에 응집한 기가 압축되는 걸 넘어 소실되어갈 적, 오로지 그만이 무채색의 세계에서 훌로 뚜렷한 칠흑을 품고 있었다.

그 칠흑에 대비되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서 뚜렷한 칠채七彩의 광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

세번의 시도 끝에, 그가 그것을 이해한 채, 강제로 손으로 불잡아 그어냈던 색채끼리의 경계를 지웠다.

‘칠색七色은 즉 감정이다.’

희노애락애오욕喜怒愛樂哀惡慾.

아마도 그리 표현되는 것.

사람의 마음 안에서 들끓는 그 감정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집어삼키고 뜻대로 옮길 수 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검정색을 재단할 적, 그는 그것을 이해했고.

동시에 흥에서의 모친에게 아마도 『즐거움』일 듯한 자색의 비율을 억지로 손으로 잡아 늘려갈 때, 그 비율에 따라 그녀의 반응이 달름을 확인했다.

‘사람의 정신에 개입한다, 라 했던가.’

이것은 그렇다면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결과물이겠지.

— 우그그극...

“예서는 출동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친구 분과 만나실 거라고 나가신다 하셨었고요.”

“그랬, 그랬, 그...랬...”

“그랬습니다.”

무수히 많은 색깔이 뒤섞인 원 혹은 구 안에서 보라색이 그 비율을 늘려가는 광경.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수만가지 감정과 생각으로 뒤섞여서 존재하는, 무형無形의 것이기 때문에 이리 보이는 것 뿐일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뚜렷하게 어떻게 생겼다 정의내릴 수 있는 장기같은 건 아닌 법이니까.

그러나 그 색채가 열어지는 건, 그것이 억지로 이끌어낸 감정이기 때문인가.

“뭐.”

그렇지만 당장으로서는 어찌 되든 좋은 일이었다.

적어도 이전의 둘과 달리 감정의 총량이 동일하기 때문인지, 정신을 차리려는 기미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랬다.

“늘 있는 일 아닙니까.”

먼 미래에 일이 수틀릴 위험성 따위는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을 때부터 그는 서순을 그렇게까지 신경쓰고 있지 않았으니.

그저 그보다는, 그가 담담히 흥에서의 모친을 일으켜 세운 채 집 밖으로 보내면서 다른 것을 신경썼을 뿐이다.

“ 그러니까, 좋은 밤 되세요.”

“어 ? 아, 응 ! 수현아 너도 !”

단전 안에서부터 뻣어지는 기묘한 체감, 그것이 일궈내는 공명음.

그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듯 울고 있으니, 무엇이 부족한지는 뻔한 일.

‘더 많이 ?’

육천영락결은 이것으로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해야 사람 셋 아니 둘의 감정을 먹어치운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육총천六層天.

명규제의冥竅製儀.

지금 이 상태보다도 아득히 멀리 있는, 명규제의라 불리는 심법心法의 경지.

그가 몸 안에 품은 공력功力의 단계를 그는 서서히 감각했다.

*

검게 물든 마기는 사람의 감정을 먹어치우듯 집어삼켰다.

그러면 반대로 그 먹어치워진 감정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까지는 그 흔적도 알 수 없었지만, 육천영락결을 운용하면 할수록 그걸 알 것도 같았다.

느낌이 온다.

‘신체 안.’

몸 어딘가 혹은 몸의 너머 어딘가에 그것들은 쌓이고 있었다.

심법을 연마하고 마기를 쌓듯이, 그것들 또한 응집하며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이다.

허나 겨우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건, 그것들이 쌓인 것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고작해야 감정일 뿐이라는건가?’

— 달그락...

손 안에 잡힌 염주 따위를 몇 차례 굴려보면서 감각하기에 이걸 쓸어올려서 필요치까지
달으려면...거진 수천 배는 필요할 듯 했다.

둘에서 셋의 감정을 집어삼킨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개중에 하나가 신비청의 절정고수고, 다른 하나는 천재라고 칭송받는 여자애라 해도
그렇다.

역치가, 높다.

“과연, 천마신공.”

좋은 일은 아니었다.

당장 신비청 요원 하나를 사고 없는 실훈인으로 만든 시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순간을 넘기면 기대해봐도 될 효능이 있다는 거겠지 그것도.

문득 이 세상에서 십여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무공이라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들었던 여러가지 일.

당장 얼굴도 잘 알고 다니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던 국가적 재난부터,
정체 모를 질병과 괴인화 바이러스 따위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건 이 세계의 삶이 꽤
질릴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리라.

적어도 그 일들에 휘말려서 아동바동 발버둥치는 삶은 그랬다.

“...하지만 적어도 그 역치를 채우면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겠지.”

그렇기에 그렇지 않은 미래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친구와 친구의 부모에게 살수殺手나 다름없는 것을 펼친 것을 감내할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

— 뜨드득...

이수현은 그것을 생각하며 손아귀 안에서 굴리던 염주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털었다.

어느새 터져버린 듯, 줄이 끊어진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려다본 곳에는 무표정하게 숨죽은 듯 누워있는 여자가 하나.

그 얼굴이니 몸이니에 염주알들이 흐트러지듯 쏟아졌음에도 어떠한 육체적 반응도 없다.

연현아는 그저 그렇게 멈춰 있었다.

“...당신은.”

지금까지는 생각이 따라주지 못했지만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소청단의 진기를 아슬아슬하게 가늠하다가, 그는 흥예서와 함께 누워있던 연현아에게 명령해보았다.

손은 그녀의 심장 위로.

내뱉는 말에는, 육천영락결을 운용할 때 느껴지는 기묘한 공력功力を 담아보려는 채로.

진기는 단전 안으로 모이면서 어느샌가 휘발되고, 내뱉는 말은 검게 물든 채 일렁인다.

육천영락결 六天靈落訣
흔심타력 混心墮力

“그 공력과 기척을, 체내로 집속시켜서 숨길 수 있나 ?”

그렇게 말에 색채가 입혀졌기에, 파고드는 것이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 우우웅...

그 몸이 한 순간 떨렸다.

움찔거리는 몸과, 심장이 뛰듯 펴진 손.

무언가 거부하는 듯한 반응이 돌아오지만, 어설프게나마 육체에 서린 기감이 그 몸을 읽어내렸다.

그 몸 안에서부터 퍼진 공력의 잔흔, 기력의 세기가 줄어드는 감각이...천천히 느껴진다.

‘과연.’

아마도 정체 모를 심법이 운용되는 걸까.

무인의 육체에는 단전 뿐만이 아니라 팔다리의 경락에까지 진기가 맺혀 있음이 상식.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심법과 그 영향에 의해 갈무리된다.

쉬이 숨길 수 없을 기력의 기척이 단전에 집속되며 흔적도 없이 숨기는 모습은, 분명하게 은신을 위한 기공도 운용되는 모습이었다.

‘아주머니한테 할 때도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듯한 움직임.

이제야 다루는 법을 어떻게든 알 것 같은 육천영락결의 기초를 인지하고, 말을 잇는다.

“그러면 일어나라.”

“...으...”

“일어나서, 걸어. 걸어서 내 방으로 가라.”